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

8/26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막 12:30

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 14:23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후 5:14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전 2:10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1:8

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지 않았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된 요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일상적인 활동들에 참여할 때 우리의 생활은 그러한 활동들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달려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막 12:30, 계 2:4-5, 요 14:23, 21:15-17, 벧전 1:8).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녀의 온 생활은 그 갓난 아기가 된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은 그녀의 갓난아기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사랑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그분으로 점유되고, 우리는

그분을 산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이었다. ...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고, 그가 죽는다면 그것은 유익이었다(빌 1:21).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최고도로 사랑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 그날 밤에 그것에 관한 꿈을 꿀 것이다. ... 우리는 이와 같은 정도까지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생명의 체험과 성장, 5 장, 40-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전 2:9).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지적으로 그분과 하나 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교통을 하며,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시 73:25, 25:14).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을 뿐 아니라 체험하고 누리고 완전히 그 안에 참여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2 장 10 절은 그 영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한다. ‘꿰뚫어보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적극적인 탐구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발견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탐구해서 얻는 정확한 지식을 뜻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이들을 탐구하시어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도록 영 안에서 그것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의 깊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영원한 몫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영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영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16, 166-168 쪽)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요 14:21). 이것은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임재가 있음을 의미한다. ... 우리는 갈수록 더 아들의 나타나심 안으로 이끌려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해야 한다(요 14:23).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계단을 오를 필요가 있다. 그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4 장, 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과 성장, 5 장;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

8/27 화요일

아침의 누림**요일 4:19**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후 2:10

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3:16, 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6-7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삼상 16:7

7 그러나 여호와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와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엡 1:18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딤후 1:16

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요일 4:19)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4:20-21). ... 누군가가 어느 한 형제를 습관적으로 미워한다면, 이것은 그가 신성한 사랑이나 신성한 빛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2:9-11).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빛 안에 거한다. 즉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신성한 빛과 신성한 사랑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산다.

요한일서 4 장 21 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다(요일 2:7-11, 요 13:34). 요한의 글 중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절들 안에 담겨 있는 요한의 기본 사상이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5, 338-33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2 장 10 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언급한다. <미국 표준역 성경(American Standard Version)>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번역한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반적으로 ‘임재’로 쓰이는 단어는 ‘파루시아(parousia)’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 ‘인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소폰(prosopon)’이다. 바울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형제를 용서했다. 인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얼굴 곧 눈언저리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곳으로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나타나는 곳이다. 얼굴의 눈언저리 부분은 모든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곳으로서,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즉 그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에 따라 살았다. 이것은 매우 깊고 매우 세밀하며 매우 섬세한 것이다.

나는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내 속에 생겨났던 느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단지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세밀하게 당신의 인격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주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인격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그러나 여기 고린도후서 2 장 10 절에 있는 표현은 바울이 항상 주님의 눈언저리에 따라, 곧 주님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에 따라 주님의 인격 안에서 처신한 사람이었음을 말해 준다.

바울은 주님의 눈언저리를 바라보았고,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분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고 있었다. 그는 용서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에 따라서나 육체에 따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한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의미이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지 않을 정도까지 감소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과 생각, 그리스도의 느낌의 표현 안에서 처신하였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깊은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까지 감소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4 장, 235-2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5;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5;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4 장

8/28 수요일**아침의 누림****엡 4:1-3, 4**

-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시다.

요 7:37-39

-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전 1:2

-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록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고전 10:3-4

-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 항목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며, 셋째 항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에베소서 4 장 2 절에서 말하는 미덕들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변화된 인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타고난 인성 안에는 겸허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 없다. 이러한 미덕들은 우리의 변화된 인성, 즉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만 발견된다. ... 온유와 겸허는 예수님의 인성의 특성들이다(마 11:29).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온유나 겸허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참된 시험도 통과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인성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더 많이 변화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욱더 소유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미덕들을 갖는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 427 쪽, 메시지 36, 3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하나는 마흔여덟 개의 금을 입힌 시뵘 나무로 만들어진 널빤지들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성막의 그림 안에서 발견된다. 널빤지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금 안에서는 하나였다. 널빤지들을 함께 붙들어 주는 가로대들 역시 금을 입힌 시뵘 나무로 만들어졌다. ... 금을 입힌

가로대는 연결하시는 영을 상징한다. 시뵘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 그러므로 이것은 연결하시는 영께서 단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니시라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 연합된 영은 로마서 8 장에서 볼 수 있다. ... 로마서 8 장 4 절에 언급된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우리 사람의 영이다. 더 나아가, 로마서 8 장 16 절은 ... 분명히 우리의 연합된 영, 즉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그 영을 가리킨다. 연결하는 가로대들을 구성하는 이 연합된 영 안에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미덕들을 지닌 변화된 인성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온유하고 겸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나는 에베소서 4 장 2 절에 있는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의 타고난 인성 안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그것들은 오직 변화된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특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미덕을 지닌 변화된 인성은 연결하는 가로대 속에 있는 시뵘 나무로 예표된다. 이것은 연결하시는 영 안에 변화된 인성, 즉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변화된 우리의 인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데에는 변화가 요구된다. ...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겸허나 온유가 없을 것이다. 더 많이 변화될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상속받는다. 이 모든 미덕은 우리가 변화를 통해 상속받는 유산이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변화된 이들만이 그 영의 하나를 지킬 수 있다. 천연적이고 육체에 속한 이들은 온유하거나 겸허하거나 오래 참을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타고난 존재 안에는 하나님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에베소서 4 장 2 절에 변화의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천연적이고, 육체에 속해 있으며, 자신 안에 너무나 많이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인성 안에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 장 2 절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그런 다음 3 절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화평의 때는 띠를 가지려면 우리는 십자가로 제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지킬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6, 341-34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6

8/29 목요일**아침의 누림****엡 4:15**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엡 5:15, 18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막 9:7-8

7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 그들이 즉시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골 2:16-17

16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시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처음 네 가지 방면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과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4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과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5 장에서는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과 영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5 장에는 세가지 중요한 단어들, 사랑과 빛과 영이 있다. 처음 열네 절은 사랑과 빛을 다루고, 이 장의 다음 단락은 연합된 영을 다룬다.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엡 5:18)은 우리의 거듭난 영, 즉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비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러야 한다(3:19). 에베소서 5 장 18 절부터 6 장 9 절까지에 포함된 모든 항목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한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장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들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작 이러한 미덕들의 근원인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에 관해서는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고,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들은 노예들을 합당하게 대할 것이다. 이 모든 항목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된 것의 결과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1, 470-4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영에 바람이 빠져 있다면, 프뉴마*로 채워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유소*에 가서 우리의 영을 프뉴마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에베소서 3 장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러야 한다. 만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영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방면이다. 첫째 방면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은 몸의 생활 즉 교회생활을 위한 것이다. 둘째 방면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며, 이것은 건축을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른 생활의 표준이라는 틀 안에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일상의

행함을 통제하는 높은 표준과 높아진 원칙이 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을 표준으로 취하고 그분의 생활을 원칙으로 취하는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생활은 사랑과 빛 안에 있는 생활이다. 우리는 실재(진리)에 따라 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빛과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해야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합당한 행함의 이러한 네 가지 방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 안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놀라운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 그다음 그리스도를 배우고 사랑과 빛 안에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내적 충만에서 복종과 사랑 x 과 순종과 돌봄뿐 아니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모든 다른 속성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방면은 앞의 네 가지 방면들, 즉 하나님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의 결과이다. 우리가 합당한 행함의 이러한 다섯 가지 방면을 실질적으로 살 때,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겠는가!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된다면,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요점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1, 471-4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8/30 금요일

아침의 누림**렘 48:11**

11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 왔으며 양금 가라앉았어도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았던 적이 없었고 쫓겨난 적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히 12:11

11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고후 2:14-15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5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4:16

16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 향기를 날려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이 동산에 와 그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왕하 4:8-9

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다.

9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에레미야서 48 장 11 절은 주님 앞에서 어떤 징벌이나 고난을 한 번도 겪은 적 없는 이들을 묘사한다. 모압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편안하게 지내 왔으며,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겪지 않았다. 그러한 편안함은 무엇을 낳았는가? 모압 사람들은 양금이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게 되었다. 포도나 다른 과일로 술을 담그면, 술은 위로 떠오르고 양금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술은 떠오르지만 양금은 가라앉는다. 맑은 술을 만들려면,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부어야 한다. ... 한 번 옮겨 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금이 다른 그릇으로 따라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 과정이 거듭 이루어져야 한다. ... 양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술을 계속 옮겨 부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압이 어릴 때부터 항상 편안하게 지내 왔으며 양금이 가라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모압은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았던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양금이 모압을 항상 따라다녔다. 양금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부어져야 한다. 바닥에 가라앉은 양금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는 거듭거듭 옮겨 부어져야 한다. 모압이 양금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위는 맑았지만 바닥까지 비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련과 징벌을 한 번도 통과해 보지 않은 이들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았던 적이 없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1 장, 186-1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하기 원하신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결코 편안함과

안락함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모압의 편안함은 그를 영원히 모압으로 남아 있게 했다!

여기에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있다. “그 맛이 그대로이며 /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모압은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옮겨 담아지지 않았고, 이 술에서 저 술으로 옮겨 담아지지 않았으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아지지 않았다. 모압은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셔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맛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냄새를 바꾸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맛과 냄새를 원하지 않으신다. ...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서 어떤 종류의 맛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믿는 이가 된 지 십 년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맛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 즉, 우리의 냄새는 주님을 믿기 전과 다름이 없이 그대로일 수 있다. 히브리어로 ‘향’은 ‘냄새’ 즉 어떤 물체의 원상태가 지닌 풍미를 의미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서 특유의 냄새가 있었다. 지금도 우리에게서 동일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귀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본래 맛을 잃고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열매가 화평을 가져오는 열매임을 기억하라. 이 열매를 얻으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징계의 시간 가운데 원망하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거역하는 것이다. 징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슬퍼할 수는 있지만,

원망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에게 화평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열매가 필요하다. 화평을 가져오는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그분께 따지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가 있다면, 의의 열매도 열린다. ... 화평이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라면, 의는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만일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열린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조성하시는 것이다.(워치만니 전집, 개정판,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1 장, 187-1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1-42 장

8/31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6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엢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고후 5:16-17

16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갈 6:14-15

14 그러나 나에게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5 이것은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어둠은 좋은 나쁜든 유용하든 그렇지 않은 다 천연적인 것이며, 성령께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하시는 데 전적으로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지혜, 천연적인 총명함, 천연적인 기질, 천연적인 약점들, 천연적인 미덕, 천연적인 속성과 더불어 우리의 성격과 습관은 모두 허물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미덕과 새로운 속성을 형성하실 수 있다. 이러한 재조성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어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빛 비추시고, 감동시키시며, 인도하시고, 적시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어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 있는 모든 세부

항목과 사람과 일과 사물을 안배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빠름과 느긋함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을 안배하여 두실지도 모른다.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총명함이나 둔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안배하실지도 모른다. 그분은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와 어리석음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또 다른 환경을 안배하실지도 모른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각종 사람과 일과 사물을 사용하시어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모든 방면을 허물어뜨리신다.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전기, 개정판, 15 장, 19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걸사람의 속박과 제한을 받고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걸사람이 반드시 파쇄되어 속사람(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의 영)이 해방되어야 한다(비교 고후 4:16).(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전기, 개정판, 16 장, 198 쪽)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다루심을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 거기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들은 어둠 속에 살며 ...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파쇄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빛이 부족하고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거나, 오직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한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시어 그분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주님, 이것은 당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최소한 우리는 ‘그’ 손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세상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틀릴 수 없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기 사랑을 제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며 “주님, 이것이 당신의 손이라면, 제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오해와 불평과 불만이 오직 한 가지, 곧 은밀한 자기 사랑에서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자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뿌리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의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일이 당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봅니다. ... 이 모든 일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생명이 저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 자기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것을 행했고, 당신의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손길을 보며 기꺼이 당신께 제 자신을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제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길을 얻으시는 것이다.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걸사람이 파쇄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4 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1 장, 195-19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전기, 개정판, 15-16 장

9/1 주일

아침의 누림

살전 1:5-9

5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6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울려 퍼져 나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도 각처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관한 일, 곧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이며,

살전 2:7, 10-12

7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젓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10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11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과 성장, 5장;

찬송: 1240 (英) 깊이 깊이 십자가 안으로 (中:832)

1 깊이 깊이 십자가 안으로 가게 하소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은 오직 깊은 죽음뿐
주님 우리 안에 더 운행하소서
주 안에 온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2 높이 높이 주의 생명으로 올라갑니다
오직 주의 생명만이 우릴 높이 이끄네
주님 우릴 매일 변화시키소서
주 풍성한 생명 더욱더 누리도록.

3 자라 자라 매일 우리 안에 주 생명 자라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걸어가시네
주님 우리 안에 더 증가하소서
주 생명 안에서 더 자라게 하소서.

4 사네 사네 그리스도 우리 모든 길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네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주 이름 부르며 모든 것 다 바치리.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Christ as the Mediator and Surety of the Better Covenant and the Blood of the Covenant

Scripture: Heb. 7:22; 8:6; 10:29; 12:24 and Heb. 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64-65, 69